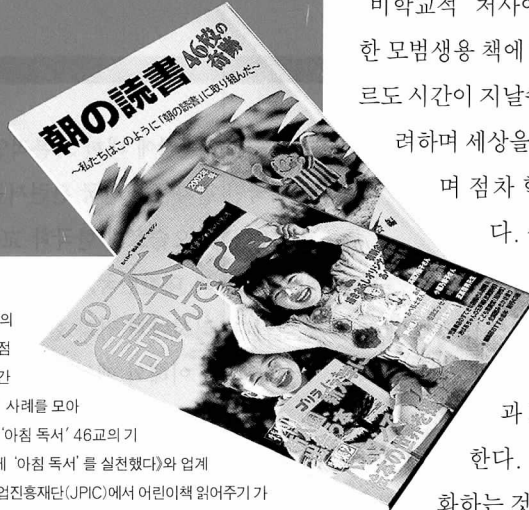


책읽기 문화의 기적 낳은 일본 독서운동의 교훈

학교 · 도서관 · 출판계가 협력해 일군 '아침 독서' 효과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형 도매상 토한의 서점용 정보지 《서점 경영》에 지난 4년간 게재된 '아침 독서' 사례를 모아 단행본으로 펴낸 《'아침 독서' 46교의 기적 — 우리는 이렇게 '아침 독서'를 실천했다》와 업계 단체인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JPIC)에서 어린이책 읽어주기가 이드지로 창간한 《이 책 읽어보렴》의 최근호 표지 사진.

최근 독서운동이 우리 사회와 출판계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오래 전부터 독서 관련법 등 제도 마련과 도서관 확충 등 인프라 구축,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와 다매체 경쟁에 대비해온 것에 비하면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독서환경 재구조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지만, 이를 뛰어넘는 지혜 한 가지를 일본은 제시한다.

일본의 다양한 '독서 추진운동' 가운데 가장 이채로운 '아침 독서' 운동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이어령' 격인 대표적인 평론가 키다 준이치로(紀田順一郎)는 "가장 성공한 교육운동"이라고 극찬했다. 운동의 추진체인 아침독서추진협의회(www.e-hon.ne.jp)가 집계한 6월 7일 현재 '아침 독서' 실시 학교는 총 9천17개교로, 초등학교가 약 2/3, 중학교가 나머지 1/3을 차지한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되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아침 독서'가 맨처음 제창·시행된 것은 1988년으로 치바현 소재 여교 교사들(林公, 大塚笑子)에 의해서였다. "모두가 한다, 매일 한다, 좋아하는 책이면 OK, 읽기만으로 OK"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 운동은, 매일 아침 수업전 10분간 학생 스스로 선택한 책을 읽자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독후감도 필요 없고, 어떤 내용의 책이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 어찌보면 매우 단순한 이 운동에 대해 당초 주

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효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다.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지난해 말 발행된 《아침 독서 46교의 기적》은 '아침 독서' 포교를 위한 간증 사례집이라 할 만하다. 초중고 교사 46명의 실천사례 보고가 실린 이 책에 따르면 학생들이 눈에 띄게 침착해지고 수업 분위기도 진지해졌으며, 흥미 있는 책에 대한 대화가 또래의 화제가 된다거나, 자기가 읽은 책을 추천하거나 운동하면서 집단 따돌림 현상이나 결석·지각 등이 현격히 줄거나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적도 향상되고 집중력도 높아졌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표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쳐났다.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을 주로 서점에서 고르는 현상 덕분에 당연히 학교 근처 서점주의 얼굴도 밝아졌다. 나아가 함께 책을 읽는 교사 자신도 감정에 사로잡힌 체면 등이 줄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게 됐다고 한다.

공교육의 위기와 교실 붕괴 등 학교 교육문제에 관한 한 세계 16개국 자동 출전하고도 남은 한·일 양국의 비슷한 입시 위주 교육 현실

을 감안하면, 책 제목대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적의 힘은 곧 책의 힘과 등가일 것이다.

'아침 독서' 시행 초기에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시행착오가 거듭됐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책을 맘대로 읽고 독후감도 쓰지 않는 '비학교적' 처사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럴듯한 모범생용 책에 국한됐던 학생들의 독서 장르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눈과 용기를 얻으며 점차 학생들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십수년 전에 '아침 독서'를 경험한 여고생들은 이제 주부가 돼 아이들과 함께 책읽기를 즐기는 습관과 가정문화를 가꾸게 됐다고 한다. '배움의 가장 큰 증거는 변화하는 것'임을 이 운동은 확연히 보여준다.

토한(東販) 등 출판 도매상과 언론은 이 운동을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출판계나 서점계 차원에서 펼치는 자체 독서운동도 활발하다. 공공도서관 역시 24시간 편의점을 거점으로 한 대출·반납 서비스를 올 가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구미에 비해 뒤쳐진 병원도서관을 내실화하자는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다.

우리 출판은 이제 충실한 자구노력을 내실화하는 한편, 교육계, 도서관계와 돈독한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업, 군대, 병원, 은행, 역, 백화점 등 수많은 생활공간을 독서 거점화하기 위해 더한층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독서 생활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정비야말로 개인적 자발성에만 호소하는 통과의례적 독서운동의 한계를 돌파하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계 내부의 의사소통 촉진과 사회적 발언력을 높이는 것, 특히 《출판저널》과 같은 권위 있는 출판정보·서평지 등을 키워 독서 사회화를 위한 최소한의 자원을 자력으로 공급하는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정부와 업계가 책임 있게 독서문화를 이끄는 것은 내일의 기상도 그 자체다. 진정한 출판 르네상스의 기적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을 넘어야 한다. ■